

TOGETHER Harim



티핑 포인트

균형을 이루던 것이 깨지고
한순간에 전파되는 극적인 순간 일컫는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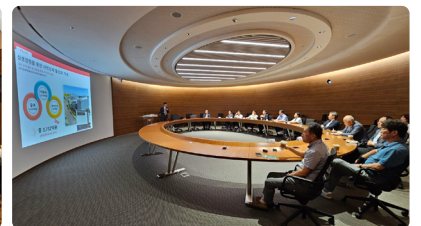


196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셸링(Thomas Schelling)의 논문에서 처음 소개된 개념입니다.

단어 그대로 풀이하면 ‘갑자기 뒤집히는 점’이란 뜻으로
때로는 엄청난 변화가 작은 일에서 시작될 수 있고 급속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 됩니다.

소수의 법칙은 영향력 있는 소수에 의해 전파 된다는 내용이고, 고착성의 법칙은 메시지가 흡인력을 갖어야 사람들의 기억속에 고착돼서
행동을 변하게 한다는 법칙이고, 상황의 힘 법칙은 주변 상황이 맞아 떨어져야 전파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02	기획포커스 시사 상식 사전: 심리편 목차	14	하림인 이야기 다가오는 가을! 취미로 누리는 나만의 소확행	20	비즈니스 잉글리쉬
04	트렌드 리포트 이달의 트렌드는?	16	전국 닭 요리 대전-떡볶닭	21	눈으로 보는 하림
06	협력업체 탐방 (유)태림종합물류	18	MZ생각 아모르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MZ세대의 결혼관	22	쉽게 보는 하림 용어 사전 이달의 퀴즈
08	하림 뉴스 2025년 9월	19	슬기로운 MZ생활	23	현명하게 명절 보내기



Date of Issue
 2025년 10월 1일

Publish
 (주) 하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www.harim.com

지역과 기업이 윈윈하는 ‘로코노미’

사회·경제적 가치, 지역 브랜드 가치까지 UP



최근 식품산업계를 중심으로 '로코노미'가 뜨겁게 주목받고 있다. 로코노미(Loconomy)는 '지역(local)'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지역 특산물이나 문화·자원을 활용한 상품을 소비하는 문화 현상이다. 특히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기업의 상생 마케팅이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식품업계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기업에게는 차별화된 마케팅과 사회적 이미지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호응도 높다. 시장조사전문기관 트렌드모니터의 '로코노미 활용 식품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는 로코노미 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었다. 소비자 다수는 가치소비 관점에서 로코노미 활용 식품을 높이 평가했는데, 로코노미 식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응답자가 81.4%, 로코노미 식품 구매 자체를 가치 있는 소비로 생각하는 소비자도 61.9%에 달했다. 특히 고연령층의 경우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로코노미 식품을 건강한 먹거리로 인식하고 더 맛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로코노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맥도날드다. 맥도날드는 지난 2021년 창녕 마늘을 시작으로 보성 녹차, 진도 대파, 진주 고추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신메뉴를 선보이는 '한국의 맛' 캠페인을 이어왔다. 맥도날드가 '한국의 맛 프로젝트'를 시작해 약 617억 원에 달하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농가 소득 증가, 농산물 폐기 비용 절감 등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이중 창녕 버거가 창출한 사회경제적 가치는 약 443억 원. 전국에 창녕을 알리며 지자체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농가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창녕 하면 마늘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다른 기업에서도 협업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지역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

지난 7월에는 익산 고구마를 활용한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머핀'을 출시하기도 했다. 익산시와 협업한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머핀은 출시 한 달 만에 판매량 240만개를 기록했다. 익산에 단 하나뿐인 맥도날드 매장은 '자랑스럽다! 익산 고구마! 맥도날드 버거로 금의환향!' 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선착순 300명에게 기념 수건을 배포하기도 했다. 지역 사회의 관심과 자부심도 컸는데, 고구마로 전국을 사로잡은데 이어 익산 양파가 전국 피자 프랜차이즈 3곳에 공급되며 대한민국 입맛을 또 한 번 사로잡을 예정이다. 그야말로 로코노미로 지역의 특색을 인정받고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유통업계 전반에 로코노미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도 2022년부터 6차례에 걸쳐 지역 상생 음료를 선보이고 있는데 지역 한정 특화 음료도 판매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CU와 이마트24 등 편의점 업계도 전국 각지 특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시리즈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지역과 상생하고 있다.

로코노미 트렌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이다. 단순한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가치 소비, ESC, 지역 상생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장기적인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소비자에게는 의미 있는 가치 경험까지 제공하고 있어 현재는 식품업계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관광·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의 힘'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로코노미, 앞으로의 무수한 가능성을 기대해본다.

새내기자 | 김유리 대리



“하림 계열 물류의 핵심 파트너”

(유)태림종합물류

대표이사
황부규



Q. 태림종합물류를 소개해주세요

태림종합물류는 1993년 6월 설립되어 익산시 함열읍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익산의 (유)세림특수와 상주의 (주)세림특수를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명은 태림종합물류의 고대곤 회장님 성함‘태’와 하림의‘림’을 합쳐 지은 것으로, 설립 초기에는 ‘하림특수’라는 상호로 출발해 현재의 태림종합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황부규(59) 대표이사는 1999년 대리로 입사하여 경리·회계 업무를 시작으로 회사 전반을 경험했고 현재는 대표이사로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태림종합물류는 종란·병아리·사료·곡물·신선육·육가공품까지 아우르는 특수 운송을 전문으로 하며, 하림뿐만 아니라 올품, 제일사료 등 하림그룹 계열사 전반에 최적화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15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며, GPS 관제시스템·냉장·냉동 온도관리 장비·안전보호구를 갖추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Q. 운송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하림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1993년 설립 당시 하림의 냉동차량과 사료차량 운송으로 첫발을 뒀습니다. 이후 하림이 육계 계열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종란, 병아리, 사료, 도계, 가공, 유통을 아우르는 안정적인 물류 체계가 필요해졌고, 그 과정에서 하림특수(현 태림종합물류)는 하림 물류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동반성장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하림 화재 당시 올품으로 도계 물량 운송을 맡았던 경험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 속에서도 즉시 차량과 인력을 투입해 안정적으로 물량을 운송했고, 이는 운송회사의 책임과 가치를 다시금 실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림과의 협력은 곧 회사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물동량 덕분에 매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계약을 기반으로 차량·인력·시스템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Q. 태림종합물류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강점은 생명과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특수 운송 전문성입니다. 종란과 병아리는 온도·환경 관리가 필수이고, 사료와 곡물은 위생·방역을 우선하며, 도계 이후 신선육과 육가공품은 철저한 냉장·냉동 관리와 운송 시간 준수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15평 규모의 교육 시설을 운영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차량에는 GPS와 관제시스템을 탑재해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 또 임직원과 운전원 모두에게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해 물류와 사람의 안전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경영 철학은 ‘사람존중’으로,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바탕으로 직원 행복을 최우선에 두며, ‘안전은 최우선, 신뢰와 책임은 필수’라는 원칙을 실천합니다.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냉장·냉동 온도를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차량과 장비의 정기 세척, 상하차 과정의 이중 체크, HACCP 인증 관리 등 체계적인 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고, TSP 화물차량종합관리 플랫폼을 도입해 세무·차량검사·보험 업무까지 통합 운영하며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물류업은 근무환경이 쉽지 않지만, 태림종합물류는 소통·존중·신뢰를 바탕으로 직원들과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로 배려하는 분위기를 경쟁력으로 삼으며, 이는 하림과 동반 성장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림의 계열화 전 과정을 함께하며 물류를 안정적으로 책임져왔다는 사실이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저희는 단순 운송을 넘어서 하림의 품질과 신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최종 주자라는 책임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사고 운행을 99% 이상 달성을 목표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물류시스템 도입으로 정시 배송률 95% 이상을 유지하며, 상호조 설립을 통해 공동 복지도 실현하고자 합니다. 무더위와 추위 속에서도 안전 배송에 힘쓰는 운송 파트너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끝으로, 고된 일정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건강과 안전이 곧 회사와 가정의 행복이라는 마음으로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사내기자 | 김봉균 사원

01

2025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고용 인원 확대, 유연근무제 및 복지제도 강화

우리 회사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되어, 지난달 11일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를 받았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선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우리 회사는 적극적인 고용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총 고용 인원은 2,404명으로, 2023년 대비 83명(3.6%) 증가했다.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 회사는 직원



들의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했다. 시차출퇴근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등을 운영하여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근무 시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복지제도를 통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영유아 자녀 보육료 지원, 결혼 및 출산 등에 따른 경조금 지원, 사내 동호회 활동 지원, 통근버스 운영 및 식사 제공, '하림의 봄' 사진 콘테스트 운영 등 다양한 복리후생을 제공한다.

이러한 노력은 이전에도 인정받아, 2023년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 경력단절예방 우수기업' 표창을 받으며 여성 고용 유지 및 확대에 대한 공

로를 인정받은 바 있다.

1978년 창립한 우리 회사는 국내 최초로 농장부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삼장통합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연의 신선한 식재료를 만든 최고의 맛으로 식문화를 선도하며 행복을 나눈다'는 사명 아래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공급해 왔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이번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은 모든 임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국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사내기자 | 백의철 차장

02

One ERP 1단계 구축 본격 가동...11월 시스템 오픈
전 부문 데이터 통합으로 경영 효율화 추진

우리 회사는 전사적 자원 관리 체계(ERP) 통합을 목표로 한 'One ERP 1단계' 구축프로젝트 가동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신선한 식재료를 최고의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식품 가치 사슬을 통합 관리하고, 계열화된 사업영역을 운영하는 우리 회사의 경영철학과 사업 전략을 지원하는 업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시스템을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재무·영업·구매·생산 등 주요 영역의 데이터를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우리 회사는 분석, 솔루션 최적화, 통합테스트, 사용자 교육 등을 이어가며 구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10월 말까지 매출·매입, 생산, 출하 등 각 부문별 마



감 작업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한 뒤, 데이터 이관과 검증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11월 초 One ERP 시스템을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재무 부문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경비 마감, AR/AP 확정 등 주요 결산 업무를 완료하고, 관리 영역에서는 재고 및 원가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한다. 영업·구매·생산 부문 역시 같은 시한에 맞춰 주문·출고·재고 마감을

진행한다.

디지털혁신실 김창환 실장은 "One ERP 도입은 그룹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데이터 이관과 마감 일정에 따라 안정적인 시스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내기자 | 남다빈 사원

03

사육농가와 '한마음 어울림 축제'로 파트너십 강화 상생 축제서 동반성장 의지 재확인

우리 회사가 지난달 2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하림-사육농가 한마음 어울림 축제'를 열고, 농가와의 상생을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서 우리 회사는 자사 파트너 농가의 2024년 가구당 연평균 사육비가 2억 6,1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5,000만 원 대비 522%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성과는 '농가소득 업계 1위'와 '도산농가 제로'를 목표로 한 우리 회사의 체계적인 상생 프로그램이 뒷받침된 결과다.

우리 회사는 농장 신축 지원, 상생금융 운영 등 '소득향상 프로그램'과 함께, 최소 사육비 지급, 자녀 장학금 지원 등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회사는 올해 농가 자녀 66명(대학생 39명, 고등학생 27명)에게 총 5,2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흑서기 대비를 위해 2억 100만 원 상당의 영양제를 지원했다.



우리 회사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 고품질 병아리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약 30억 원을 투입해 삼기부화장을 리모델링하고, 65억 원을 들여 사료공장 생산능력을 증설할 계획이다. 이는 농가에 최고 품질의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약속의 일환이다.

또한,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스마트 사육 환경을 제공하고, 2030년까지 동물복지 인증농가를 100곳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는 농가협의회 임원, 하림 임직원, 협력사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석 계획이었으나 경기 지역에서의 시발생 영향으로 참여 인원을 최소

화해 130여 명만 참석했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축사를 통해 “농가와 회사는 운명 공동체”라며 “하림과 농가가 한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더 큰 성과를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협의회 이광택 회장 역시 “우리 농가와 하림은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 상생과 협력이라는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화답했다. 행사에서는 장기계약 및 사육 성적 우수 농가뿐만 아니라 운송기사, 상차반 등 우수 협력업체 직원 개인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져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새내기자 | 백의철 차장

04

전국 유통매장 '진열 개선 캠페인' 전개 실시간 진열 상황 공유·재고 관리 강화로 매장 경쟁력 제고

우리 회사 육가공부문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주요 유통매장에서 '진열개선 캠페인'을 전개하며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관리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진열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에는 전국 301개 매장이 참여했으며, 우리 회사 임직원 60여 명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제품 진열과 행사 운영을 지원했다.

또 임직원 90여 명이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진열 상황을 공유하며 효율적인 매장 관리를 이뤄냈다.

캠페인 활동은 재고 및 진열 현황 실시간 공유를 통한 결품 방지, 입점 상황 점검과 페이스1 확장 요청, 객수2 점검 및 매장 분위기 공유 등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우리 회사 제품 시식 행사를 운영하고, 매장 내 브랜드 인지도 제고 효과도 동시에 얻었다. 실제로 코스트코 세종점, 롯데마트 목포·잠실점, 이마트 광명소하점 등 전국 대형 유통점에서 우리 회사 제품 진열 상태가 개선되었으며, 현장 모니터링 결과 매장 방문객의 반응 또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유통영업팀(가) 이상준 팀장은 “진열개선 캠페인은 단순히 제품을 진열하는 수준을 넘어, 재고 관리와 판매 현장 모니터링을 동시에 강화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과 가까운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내기자 | 남다빈 사원

1) 페이스(pacing) : 매대(진열대)에서 상품이 차지하는 칸. 페이스를 넓히면 진열이 커지고 소비자의 눈에 더 잘 띌 수 있음.

2) 객수 : 매장을 방문한 고객 수. 특정 시간대나 행사 전후 얼마나 많은 고객이 들어 왔는지 점검

05

NS푸드페스타서 하림의 맛 알려 26~27일 2만 1000여 명 참여..행사 성료

우리 회사가 'NS푸드페스타 2025 in 익산'에 참여해 하림의 우수성을 알렸다.

최고의 맛을 먹고, 보고, 즐기는 NS푸드페스타는 국내 농수 축산업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이어져온 식문화축제이다.

지난달 26~27일 이틀 동안 하림 퍼스트키친에서 펼쳐진 NS푸드페스타는 2만 1000여 명이 방문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전국 요리경연, 식품 스타트업 경진대회, 쿠킹클래스 등 단



순한 경연을 넘어 방문객이 직접 즐기는 체험형 행사에서 우리 회사 역시 행사에 다양한 맛을 더했다.

그림 브랜드존 내 동물복지 IFF 한입씩 닭가슴살, 직화무뼈닭발, 용가리 치킨볼, 오늘단백 초코라떼 등 신선, 가공 제품 20여 종 등 하림의 다양한 제품을 전시, 홍보했다.

더불어 프레쉬마켓에서 닭발편육, 오늘단백바, 용가리치킨 등 12종의 신

선, 가공 제품을 시식·판매했다.

홍보팀 김봉균 사원은 "성공리에 개최된 NS푸드페스타에서 하림의 맛과 맛을 함께 알릴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하림과 그림 계열사의 신선함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즐기고 갔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내기자 | 김유리 대리

06

피오봉사단과 탄소중립 실천 약속해요! 국립세종수목원서 생물 다양성 및 환경의 소중함 배워



우리 회사가 환경봉사단 '피오봉사단'이 지난달 13일 국립세종수목원을 찾아 탄소중립 생활 실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자연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세종수목원'은 급격한 기후 변화와 국내·외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후대의 식물과 생물을 보존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도심형 수목원이다.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참여형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독려에 앞장서고 있다.

피오봉사단 가족들은 먼저 국내 최대 규모의 식물 전시 온실에서 지중해, 열대 등 다양한 환경의 식물들을 살펴보고 기후변화 속 식물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전문 도슨트의 해설과 함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방법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며 지속가능한 행동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서 직접 반려 허브식물을 심어보고 친환경 허브 오일도 만들어 보는 자연 교감활동이 아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작은 화분 하나를 가꾸는 일

이 곧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의 출발점임을 되새기며 온 가족이 즐겁게 참여했다.

활동에 참여한 피오봉사단 12기 해피오씨네 가족 오하준 어린이(6세)는 "오늘 체험한 허브는 향기가 상쾌해 기분까지 좋아졌다"면서 "지난번에 만든 이끼도 귀여웠는데 집안에 식물들이 더 많아져서 우리 집이 숲처럼 초록 초록해질 것 같다"고 말해 주변을 웃음짓게 했다.

마케팅팀 관계자는 "선선한 초가를 날씨에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온 가족이 지구의 다양한 식물도 살펴보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도 온 가족이 쉽고 즐겁게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오봉사단'은 지난 2014년 창단된 이후 올해로 12년째 이어오고 있는 우리 회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매년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소비자 및 임직원 가족이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하며, 친환경 생활 실천에 동참하고 있다.

07

고단백 간식 ‘오!날단백’ 체험단 ‘오단즈’ 1기 모집

건강한 일상 만들어갈 소비자 체험단 30명 선발

우리 회사가 고단백 간식 브랜드 ‘오!날단백’의 소비자 체험단 ‘오단즈’ 1기를 모집했다.

‘오!날단백’은 우리 회사가 ‘보리닭가슴살단백질(ICBP)’을 활용해 만든 프리미엄 단백질 간식 라인이다. 달콤한 맛은 물론 완성도 높은 영양 설계로, ‘저숙노화’, ‘헬스플레저’ 트렌드가 꾸준히 이어지자 식단을 관리하는 이들부터 건강하면서 달콤한 간식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다방면으로 사랑받고 있다.

‘오단즈’는 ‘오!날단백’을 즐기는 소비자들을 뜻하는 애칭으로, 단순 체험단을 넘어 우리 회사와 함께 건강하고 달콤한 일상을 추구하는 팬덤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모집을 시작했다.

‘오단즈’ 체험단으로 선정된 30명에게는 ‘오!날단백 초코바(2종)’와 ‘오!날단백 라떼(3종)’ 전 제품이 제공되며, 텀블러, 스포츠 타올, 리유저블 쿨러백 등 꾸준한 운동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특별 제작한 굿즈 패키지도 함께 증정된다.

‘오!날단백 초코바’(밀크초코 피스타치오, 밀크초코 카라멜)는 부드러운 밀크초코 코팅에도 불구하고 당 함량이 3g에 불과하며, 개당 16g의 단백질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담아 달콤한 풍미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오!날단백 라떼’(카라멜라떼, 초코라떼, 돌체라떼)는 카페 수준의 맛을 구현하면서도 21g의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9종을 제공하는 완전 단백질 음료다.



활동기간 동안 체험단은 제품을 직접 경험한 후 개인 SNS에 후기를 업로드하고, 간단한 설문조사에도 참여하게 된다.

단백질음료팀 손혜련 사원은 “‘오!날단백’ 제품은 트렌디한 맛과 균형 잡힌

영양으로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이번 ‘오단즈 1기’는 ‘오!날단백’과 함께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갈 첫 번째 주인공이 되는 기회인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08

‘2025 전북 메이커 페스티벌’서 미래 인재들을 위한 무료 푸드트럭 운영

지난달 20일, 미래 인재들을 위한 맛있는 응원



우리 회사가 지난달 20일 ‘2025 전북 메이커 페스티벌’에서 무료 푸드트럭을 운영해 큰 호응을 받았다.

2025 전북 메이커 페스티벌은 ‘상상 더하기, 생각 나누기, 즐거움 키우기!’라는 표어 아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이 주최하고 주관한 행사다.

체험 중심의 메이커 교육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유정기 전북도교육감 권한대행, 정성환 익산시교육지원청장을 비롯한 약 1,000여 명의 유·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이 참여했다.

전북자치도교육청 과학교육원 강진순 원장은 “메이커교육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50여 개의 발명과 메이커 관련 체험 부스를 모집하고, 더욱 쉽고 재미있게 메이커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우리 회사는 행사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익산시 선화로에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교육원 내 ‘놀이마당’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며 참가자들에게 닭고기로 만든 용가리치킨, 후라이드 순살치킨 등 맛있는 간식을 무료로 제공했다.

이날 메이커 체험버스, 로봇 공연, 이동과학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기던 학생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하림 푸드트럭 앞에서 잠시 쉬어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 큰 호응을 얻었다.

홍보팀 조미희 팀장은 “미래 과학 기술 인재들의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축하하며, 이 의미 있는 행사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하림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원활동으로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내기자 | 백의철 차장

09

새만금 생태계 살리기 '구슬땀' ESC 경영 실천 앞장 토종 서식지 위협 외래식물 제거



우리 회사는 지난달 23일 새만금환경생태단지에서 전북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 새만금환경생태단지관리단과 함께 생태계 교란 식물인 양미역취 제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지난 2월 우리 회사와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환경생태단지관리단이 체결한 'ESC 활동 상호협력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된 두 번째 행사다.

우리 회사 임직원 30명을 포함한 총 64명의 참가자들은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목표로 새만금환경생태단지 내 다층숲 조성지역 약 1,000㎡에 걸쳐 작업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외래식물인 양미역취를 집중적으로 제거했다. 양미역취는 번식력이 매우 강해 토종 식물의 생육을

방해하고 서식지를 잠식하는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 식물이다. 참가자들은 양미역취를 뿌리째 뽑아내고, 이를 햇빛에 고사시킨 후 매립하는 방식으로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

지속경영팀 김은종 팀장은 "임직원들의 참여로 우리 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직접 기여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ESC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지역 사회와 상생하며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외래식물 제거 작업에 앞서 참가자들은 외래식물 동정법 교육과 탐방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사내기자 | 백의철 차장

10

방역교육 이수를 통한 동절기 AI 선제적 대응 농식품부 주관 교육 참여, 방역 최신 동향 및 정책 공유

우리 회사 사육본부 임직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주관으로 열린 'AI 방역 교육'에 참여해 다가오는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최소화를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11일 진안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우리 회사를 포함한 여러 육계 계열사 지역 관리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국내외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가금 농장 점검 요령과 2025년 AI 방역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받았다.

이어 최신 고병원성 AI 방역 정책의 주요 내용과 자율 차단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을 통해 지역 관리자들은 농장 방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효과적인 방역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을 습득했다.



조현성 사육본부장은 "이번 교육은 동절기 AI 발생을 막기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지난번 방역기간 동안 하림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을 0%로 달성했던 만큼, 이번 방역기간도 지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5일달 경기도 파주에서 2025-2026 특별방역기간 첫 고병

원성 AI가 발생하며 위험성이 커진 가운데, 우리 회사 사육본부는 AI 발생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사내기자 | 강승헌 사원

11

우수한 농장 환경 조성 위해 위생 강화 딱정벌레 방제 현장 점검



우리 회사 사육사업부는 농장 현장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육사업부는 고품질 닭고기 생산을 위해 농장 내 해충인 딱정벌레 방제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지난달 16일 양창호 식품안전센터장, 이강현 사육사업부장 등 5명의 관계자는 방제 우수 농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출하 후 휴지기에 이루어지는 방제 작업의 효율성을 확인하고, 더 안전한 사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장의 주요 해충인 딱정벌레(정식 명칭: 외미거저리) 방제 현장을 점검했다. 농장의 주요 해충인 딱정벌레(정식 명칭: 외미거저리)는 국내외적으로 육계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상처 유발, 계사 내 단열재 파괴 등 많

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날 방제 작업은 계사 내 방제약을 살포해 미세한 틈새까지 약품을 침투시켜 딱정벌레 서식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데 주력했다. 방제약 살포 2시간 후 농장 내 딱정벌레 사멸을 확인하며 방제 효과를 입증했다. 이강현 사육사업부장은 “딱정벌레 방제는 고품질 닭고기 생산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방제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에게 더 안전하고 신선한 닭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우리 회사는 이밖에도 마이크로파를 활용한 방제작업, 방제 전문팀 구성 등 친환경적이고 확실한 방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새내기자 | 강승현 사원

12

SNS 화제 ‘용가리인형 패키지’ 한정 판매 용가리치킨볼, 용가리 3종, 순살치킨 시리즈 등 구성

우리 회사가 용가리인형과 다양한 하림 인기 제품으로 구성된 한정 패키지 3종(△온가족 패키지 △용가리 패키지 △치킨볼 패키지)을 2주간 판매했다. 용가리인형은 귀여운 디자인과 실제 ‘용가리치킨’을 연상시키는 디테일로 최근까지 SNS를 중심으로 예상치 못한 ‘품절대란’이 일어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인형을 갖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재입고 요청이 이어지자, 우리 회사는 이에 화답해 ‘용가리’, ‘하림 순살치킨 시리즈’ 등으로 구성된 한정 패키지를 선보였다. 품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의 중형 용가리인형은 공룡알을 닮은 귀여운 모양에 ‘단짠단짠’ 소스 맛으로 밥반찬은 물론 맥주 안주로도 좋은 ‘용가리 치킨볼’ 2종(△달콤양념 △소이갈릭), ‘하림 순살치킨 시리즈’ 4종(△후라이드 △소이갈릭 △달콤양념 △크림버터)으로 구성된 ‘온가족 패키지’로 소비자들을 만났다.

양중맛은 크기의 소형 용가리인형은 ‘용가리 치킨볼’과 명불하전 ‘용가리’ 3종(△치킨 △떡갈비 △돈까스) 구성의 ‘용가리 패키지’에서, 가방에 걸고 다니기 좋은 키링은 ‘용가리 치킨볼’ 2종인 ‘치킨볼 패키지’로 구성됐다. 용가리인형이 포함된 한정 패키지 3종은 하림 공식 온라인 쇼핑몰 ‘하림몰(www.harimmall.com)’과 하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9월



1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한정 판매됐다.

하림 마케팅 관계자는 “지난해 용가리 팝업스토어에서 처음 선보인 용가리인형이 꾸준히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갖고 싶다’는 요청이 쏟아져 2주 동안 한정 패키지를 선보였다”며 “귀여운 용가리인형과 하림 베스트셀러, 신제품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다가오는 가을! 취미로 누리는 나만의 소확행

박상훈 차장 외자팀



제가 가을을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낚시입니다! 어릴 적 붕어 낚시가 취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자주 다니던 경험 덕분에 지금까지도 형과 함께 낚시를 즐기고 있고, 가끔은 아버지도 함께하시곤 합니다. 스스로 낚시를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낚시대회에 참가해 수상도 하고 상품을 받았을 때만큼은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ㅎㅎ

낚시는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고 생각을 정리하기에도 참 좋은 취미이자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서로 더 많이 잡겠다며 장난스럽게 투닥거릴 때가 오히려 더 즐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만 가족 모두가 함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취미라 며칠 전부터는 집안 일에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설거지, 청소, 육아 등 최선을 다해야 하루 정도 저만의 시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아내가 제 취미를 존중해주고 저 역시 가정에 충실하며 취미와 가정을 모두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을은 주꾸미 금어기가 풀려 모든 낚시인이 손꼽아 기다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한층 시원해진 바닷바람을 맞으며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낚시라는 새로운 취미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취미는 아니지만 올해는 마라톤 하프코스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10km는 여러 번 완주해봤지만 아직 하프코스는 경험이 없어 체력을 더 키운 뒤 꼭 도전해보려 합니다. 모두 남은 한 해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희 팀장 홍보팀



저에게 야구 관람은 주말을 기다리게 만드는 큰 즐거움입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가을은 특히 야구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죠. 작년 이맘때쯤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야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광주 기아 야구단이 2024년 우승한 것을 계기로 저도 정식 '기아팬'이 되었습니다.

기아 선수들 각자 매력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김도영 선수는 저와 딸의 최애 선수예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선배들 못지않은 뛰어난 실력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ㅎㅎ

저희 가족은 남편과 딸 모두 야구를 즐기다 보니 다같이 경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맛있는 간식을 들고 야구장에 들어서는 순간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함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예요.

저는 취미를 즐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적 여유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을 내서라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자신만의 취미라고 봅니다. 취미를 통해 스트레스도 풀고 힐링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취미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야구에 폭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하하

올해는 골프에도 더 열심히 도전하고 싶어요. 골프는 사고성, 집중력, 체력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운동이라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나의 생각과 경험을 짧게나마 공유하며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뻐합니다. 하림 파이팅! 소식지 파이팅!

박진영 지점장 총정지점



가을은 러닝의 계절! 기나긴 여름 동안 무더위와 높은 습도 속에서도 꾸준히 달려온 러너들은 가을이 되면 최상의 컨디션으로 뛸 수 있습니다. 흔히 ‘날아다닌다’라고 표현할 만큼 뛰는 즐거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때예요. 게다가 이 시기에는 크고 작은 대회들이 많이 열려 개인 최고 기록(PB) 갱신이나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저희 가족은 해마다 연초에 가족 목표를 세우는데 올해는 ‘1,000km 달리기’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마침 40대 중반에 접어들며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던 시기였기에 이것이 바로 제가 러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러닝은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취미는 무엇보다 어렵지 않아야 꾸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슬로우러닝, 존2러닝¹처럼 본인에게 맞는 편안한 심박수로 천천히 거리를 늘려가다 보면, 어렵게만 느껴졌던 러닝의 즐거움을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는 러닝에도 의미를 더해 즐겁게 달리는 분들이 많아요. 부부가 함께하는 ‘뽀런’, 맛집을 찾아다니는 ‘맛집 오픈런’, 새벽에 시작하는 ‘새벽런’ 등 러닝에 이름과 의미를 붙여 SNS에 공유하며 서로 응원하고 동기부여를 나누는 것도 러닝의 묘미 중 하나입니다.

저는 빠르지도 않고 잘 달리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누구보다 행복하게 달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림인들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자신만의 취미를 꼭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존2러닝 : ‘최대 심박수의 60~70%를 유지하며 천천히 달리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

김주형 대리 물류팀(익산)



저에게 가장 큰 활력소는 선선한 날씨 속에서 익산드래곤즈 팀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뛰는 순간이에요! ‘가을야구’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야구하기에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부터 야구 보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날 선수들의 답답한 경기력을 보다가 ‘내가 해도 저보다는 잘하겠다’라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의 선택이 제 인생 취미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하하

야구의 진짜 재미는 함께할 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경기의 짜릿함과 팀워크는 누군가와 같이 뛰어야만 온전히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열정 가득한 경기를 마친 뒤 팀원들과 나누는 시원한 맥주 한 잔,, 그게 바로 야구의 진짜 묘미인 것 같습니다.

야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첫 선발 출전 때였습니다. 내 앞으로 날아온 공을 잡아 첫 아웃카운트²를 만들던 짜릿한 순간과 제대로 된 첫 안타³를 쳤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공이 쪽 뽀아 하늘 높이 날아가는 걸 보며 느꼈던 손끝의 짜릿함과 희열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재미 삼아 시작했던 야구였는데 이렇게 글로 정리하다 보니 지나온 순간들이 영화 필름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함께 땀 흘리고 웃었던 장면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졌고 이번 기회를 통해 제 취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아웃카운트 : 공격팀이 아웃된 횟수를 세는 숫자

3) 안타 : 타자가 투수의 공을 방망이로 쳐서 아웃이 되지 않고 1루 이상 진루할 수 있게 친 타구

닭볶음탕과 떡볶이의 만남 대전 '떡품닭'

요즘 음식의 즐거움은 새로운 조합에 있다. 떡볶이에 라면, 치즈, 만두를 넣어 먹듯, 닭볶음탕에도 색다른 조합이 가능하다면 어떨까. 대전의 '떡품닭'에서는 닭볶음탕과 떡볶이가 만난 신개념 메뉴, 떡도리탕을 맛볼 수 있다.



<대표 메뉴>

- [시그니처] 떡도리탕
- 닭한마리
- 우삼겹 떡도리탕
- 한우대창 떡도리탕
- 눈꽃치즈 떡도리탕
- 닭칼국수
- 얼큰닭칼국수

<정보>

위치: 대전 서구 둔산중로32번길 35 1층 103호
전화번호: 0507-1346-6637
편의시설 및 서비스: 단체 이용 가능, 포장, 배달,
예약, 무선 인터넷, 남/녀 화장실 구분





떡과 닭의 만남, 시그니처 떡도리탕

이곳의 대표 메뉴인 떡도리탕은 닭 한 마리와 떡의 조합이 인상적이다. 닭과 떡의 비율이 반반에 가깝게 느껴질 정도로 떡이 넉넉하게 들어가 있다. 길쭉한 밀떡이 닭볶음탕의 깊고 진한 양념에 어우러져 쫄쫄한 식감을 더한다.

여기에 우삼겹, 대창, 치즈 등 취향대로 토핑을 추가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육수를 보충해 라면사리를 끓여내는 재미도 있는데 라면사리 무한리필 이벤트까지 하고 있어, 배부르게 먹고 싶은 이들에게는 천국이 될 수 있다.

또한 양념은 단순히 떡볶이에 닭고기를 더한 맛이 아니라, 닭볶음탕의 목직한 풍미 속에서 떡볶이 특유의 매콤달콤함이 동시에 느껴진다. 후추 향이 강하게 살아 있어 입안을 톡톡 자극하는 것도 특징이다. 맵기는 선택 가능하며, 보통맛은 신라면보다 약간 매운 정도다.

그리고 이 맛있는 양념에서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볶음밥이다. 다 먹은 후 남은 양념에 김가루, 참기름, 치즈를 넣고 바삭 볶아내면? 손가락을 멈출 수 없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완성된다.

든든한 점심, 닭칼국수

점심 특선으로는 닭칼국수와 공깃밥을 세트로 즐길 수 있다. 큼지막한 닭다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어 잡고 뜯는 재미가 있다.

면발에도 육수가 촉촉하게 스며 있어 습습하지 않고, 감칠맛이 깊다. 닭고기를 큼직하게 발라 칼국수와 함께 한 입에 넣으면, 부드러운 면과 쫄깃한 고기의 조합이 절묘하다. 면을 다 먹고 나서 공깃밥을 말아 마무리하면 든든한 한 끼가 완성된다.

이런 맑고 진한 국물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즐기고 싶다면, 닭한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닭한마리’메뉴를 시켜도 좋다. 닭한마리에도 떡도리탕과 마찬가지로 떡과 야채, 감자 등이 들어가 있어 깊은 국물 맛을 즐길 수 있다.

평범한 닭볶음탕은 아쉽고, 떡볶이만으로는 부족할 때, 그 두 가지 욕망을 동시에 채워줄 곳이 바로 이곳이다.

떡볶이의 화끈한 매력과 닭볶음탕의 목직한 풍미가 공존하는 곳, 대전 ‘떡볶닭’. 닭고기와 떡, 그리고 각종 토핑을 조합해 나만의 꿀조합을 찾는 재미까지 있으니, 닭볶음탕의 신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면 꼭 한 번 방문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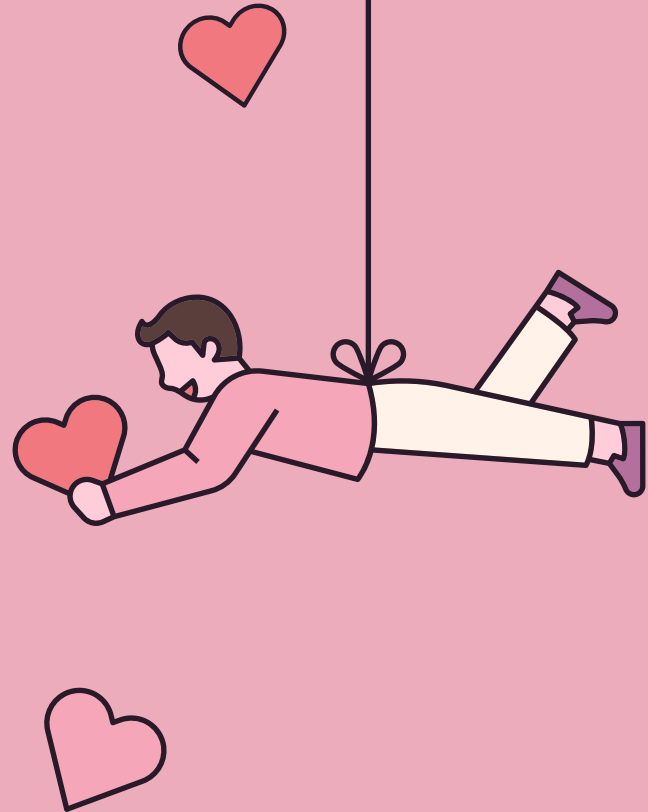


아모르파티 Amor Fati, 운명을 사랑하라

MZ세대의 결혼관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가사로 2013년 발매 당시 열풍을 일으켰던 가수 김연자의 노래 <아모르파티>. 인생의 필수 과정처럼 여겨졌던 결혼이 ‘선택’의 영역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기가 이쯤일까? 이 노래는 어쩌면 MZ세대의 삶의 방식을 예견했을 지도 모른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니체의 철학이 담긴 이 노래 제목처럼 MZ는 사회가 정해놓은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 MZ는 왜 결혼을 ‘선택’하게 됐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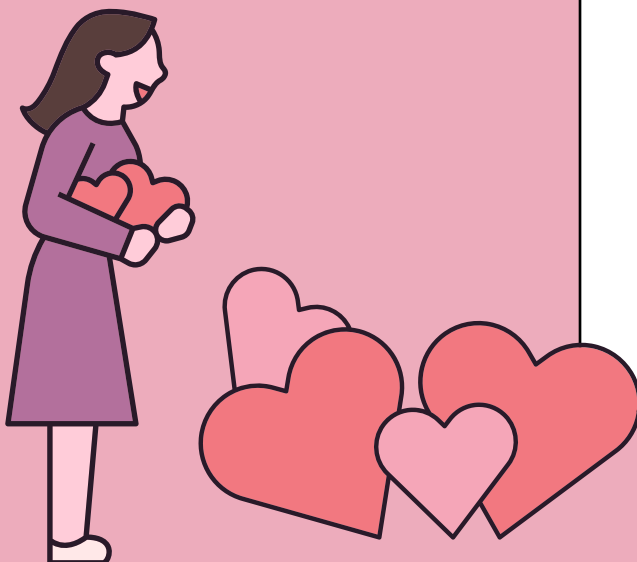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혼인 건수는 19만 4천 건으로, 10년 전인 2013년의 32만 3천 건보다 40%나 감소했다. 특히 20대 혼인율은 8%에 불과해 사실상 ‘20대 혼인’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미혼율이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연령대는 30~34세였다. 30~34세 청년의 미혼율은 56%로 20년 전(18%)의 3배 수준에 달한다. 왜 MZ는 결혼을 망설이게 됐을까?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통계청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3.7%는 결혼 자금을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 1위로 꼽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기혼자는 “결혼 자금이나 결혼 이후의 경제적 부담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고 말했다. 주변에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다. 집값은 끝없이 오르고 물가는 치솟는데, 현실적으로 결혼 자금을 모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른바 ‘가성비 결혼’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떠오르고 있다. 수백만 원대의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 대신 직접 손품을 팔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아졌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7만원대 웨딩드레스를 구매하거나, 스튜디오 대신 야외에서 셀프 스냅 촬영을 하기도 한다. 웨딩 부케 역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맞춤형(DIY)이 인기다. 이렇게 결혼식 비용을 아껴 주거비, 가전제품 등 실질적인 곳에 더 가치 있게 사용하기도 한다. 겉치레 보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다.

MZ세대가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결혼은 선택 가능한 삶의 방식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비혼, 당크 등 유형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이제 결혼은 강요하거나 이상화하기 보다는, 개개인의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할 때이다. 정해진 길을 따르기보다 스스로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진짜 아모르파티가 아닐까?

기획인사팀 박영진 사원



(회사 내 MZ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익명으로 담았습니다)

리버스 멘토링! MZ가 알려주는 요즘 뜨는 밈/신조어



요즘 MZ세대가 쓰는 밈과 신조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요즘 애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유행어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을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의외로 공감도 되고, 상황에 맞게 쓰면 꽤 재밌기도 하답니다.



1. 요즘 유행 콘텐츠: “내가 이룬 것들”

요즘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에 자주 보이는 콘텐츠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이룬 것들’이에요. 처음엔 ‘사이드 프로젝트 성공’, ‘연봉 2배 달성’같은 거창한 성취를 나열했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오히려 작고 사소한 행동들, 때로는 실패담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해서 더 많은 공감을 얻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입사 100일 만에 내가 이룬 것들 : 배달음식 주문 2,387회, 최애 아이돌 버블 결제 220,931회, 시랑 기싸움해서 간신히 이기기 12,873회, 택시타고 출퇴근하기 2,745회 등 이런 식으로 약간은 자조적인 유머를 담아 일상을 공유하는 거죠. MZ세대는 이렇게 사소한 것도 콘텐츠로 만들고, 서로 웃고 공감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많답니다.

2. 요즘 음식은 ‘맛’보다 ‘언어 감각’?

‘섹시푸드’에서 ‘쌈김치’까지, 요즘은 음식 관련 신조어가 많아진 것 같아요. ‘섹시푸드’는 맛, 비주얼, 식감까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음식을 말해요. 특히 디저트나 고급 음식을 먹을 때 자주 쓰여요! 최근 이수지가 이 주제로 노래까지 내면서, 저도 맛있는 걸 먹을 때면 “오~ 섹시푸드~”하고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ㅎㅎ 또 ‘끓여오거라’는 ‘끓여오거라’의 줄임말인데, 친구끼리 음식을 가져오라고 장난스럽게 말할 때 써요. 최근 불닭볶음면도 이걸 마케팅에 활용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쌈김치’는 일이 잘 풀리거나 기분 좋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원래는 밥 다 먹고 김치까지 쌈쌈 굽어 먹는 상황에서 나온 말인데, 요즘은 “오늘 날씨 미쳤다, 진짜 쌈쌈김치임”처럼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하답니다! MZ세대는 음식 하나도 그냥 먹지 않아요. 거기에 감정과 유머를 더해서 언어플레이를 즐기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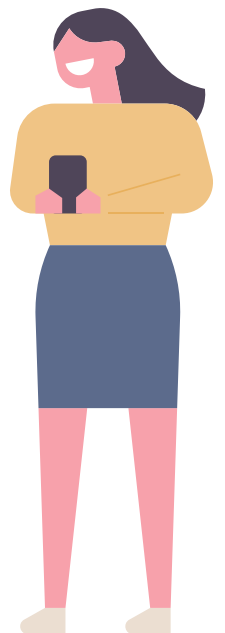
3. GMG=가면 가 / HMH=하면 해

HMH와 GMG는 각 단어의 초성을 영문으로 표기한 신조어로, 상대의 제안에 가볍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말이에요. “피시방 고?”에 “GMG”, “오랜만에 운동할래?”에 “HMH”처럼, 일상 속에서 고민 없이 던지는 가벼운 표현으로 “그래, 네가 하면 나도 할게”나 “오케이! 쿨!”과 같은 의미를 간편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 영문 초성으로 표현하니깐 더 재미있고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4. ‘하룰라라’,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요즘 MZ는 감정도 정말 재치 있게 표현해요. 최근 많이 쓰이는 밈 중에 대표적으로 ‘하룰라라’,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가 있습니다. ‘하룰라라’는 하늘나라의 변형이에요. 너무 힘들거나, 반대로 너무 행복할 때 과장해서 감정을 표현할 때 써요. “오늘 야근 3시간 짜.. 진짜 하룰라라 직전임..”, “이 케이크 진짜 너무 맛있어서 하룰라라 직행임...” 같이 사용이 가능해요!

또,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는 이문세님의 <깊은 밤을 날아서>의 가사에서 나온 밈인데, 기쁨에 대한 도파민 폭발 버전이에요. “이 날씨에 한강에서 치맥하면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이 두 표현을 합쳐서 “결재 문서 날아갔다... 하룰라라 궁전 1열 입장”처럼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단순한 유행어를 넘어서 MZ세대가 자신의 감정을 위트 있게 소통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일상 속 크고 작은 감정을 과장해서 드러내며, 공감을 얻고 웃음을 나누는 거죠!



새내기자 | 송다운 대리

초보자도 할 수 있다!

팀원들과의 원활한 소통 & 피드백 주고받기

<소통&피드백 기본 샘플>

Jane : Hi Bob, (A)how's the marketing campaign coming along?

Bob : We're making good progress, but we need some input from the sales team.

Jane : I'll check with them and get back to you. (B)Is there anything specific you need?

Bob : Yes, we need the latest sales data to finalize our strategy.

Jane : (C)Do you also need any feedback on customer preferences or just the numbers?

Bob : The numbers are our top priority, but customer insights would be helpful too.

Jane : Okay, I'll coordinate with both the sales and customer support teams to gather everything.

Bob : That would be great. (D)If possible, could you also include a breakdown by region?

Jane : Sure, (E)I'll make sure to include regional data as well.

Bob : Perfect. Once we have that, we can finalize the campaign plan.

Jane : (F)Got it. I'll send it over by the end of the day.

제인 : 밥, 마케팅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밥 : 순조롭게 진행 중이지만, 영업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제인 : 영업팀에 확인해 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특별히 요청할 부분이 있을까요?

밥 : 네, 전략을 확정하려면 최신 판매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제인 : 고객 선호도 관련 피드백도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단순한 수치만 있으면 될까요?

밥 : 우선은 수치가 가장 중요하지만, 고객 인사이트도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제인 : 알겠습니다. 영업팀과 고객 지원팀 모두와 협의해서 필요한 자료를 모으겠습니다.

밥 :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지역별 세부 자료도 포함해 주실 수 있나요?

제인 : 네, 지역별 데이터도 꼭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밥 : 완벽하네요. 그 자료가 있으면 캠페인 계획을 확정할 수 있을 거예요.

제인 : 알겠어요. 오늘 안으로 보내드릴게요.

<소통&피드백 기본 패턴>

(A), (B) 업무 진행 상황 체크하기

- Could you walk me through the progress so far?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Are we facing any delays?
지연되는 부분이 있나요?
- What's the expected completion date?
완료 예상일은 언제인가요?

(C), (D) 요청 사항 확인하기

- Do you need additional resources or support?
추가적인 자료나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 Should I involve [person/team] to help out?
[사람/팀]을 참여시키는 게 도움이 될까요?
- Would regular updates be useful for you?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도움이 될까요?
- Do you need this in a specific format?
이걸 특정 형식으로 드려야 하나요?

(E), (F) 업무 전달 및 마무리하기

- I'll pass this along to the relevant team.
관련 팀에 이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 I'll make sure you get the final approval.
최종 승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I'll send you a draft first for feedback.
먼저 초안을 보내드리니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I'll handle this and update you shortly.
제가 처리하고 곧 소식 드리겠습니다.



새내기자 | 장민 사원

눈으로 보는 하림

2025년 9월의 주요행사 모습입니다.
지난 추억들을 살펴보세요



지난달 2일 우리 회사는 군산 조공농장을 방문해 출하 현장을 점검하고 상차반 격려 활동 등을 진행했다.



우리 회사 정읍공장은 지난달 10일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했다.



지난달 11일 우리 회사 네이처멜리사업부가 2025 하반기 영양사 위생교육을 열었다.



우리 회사 사육사업부가 지난달 17~21일 베트남 나트랑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우리 회사 정읍공장은 지난달 22일 PAC 시상식을 진행했다.



우리 회사 익산공장은 지난달 25일 자체PAC 활동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하림과 함께한 사람들

0901 BHC 이종훈 부사장 일행



0909 올본(서울 친환경영양통센터)



0909

일본 바이어



0918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



0923

강진순 전북교육청과학교육원장



0924

도정협력관



0925

태국 농업 교육 관계자



HCR 견학객

HCR투어 신청은 하림푸드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9월에는 도정협력관, 태국 농업교육 관계자, 35사단,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 등 3,879명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똑! 소리 나는 하림 용어 사전

삼장통합

A : 병아리 10마리로 기업이 될 수 있어?

응! 난 돼 : H

A : 너 누군데?

나? 하림 : H

하림은 단순히 닭을 키우는 회사가 아니라

병아리 → 닭 → 도계 → 가공 → 유통 → 판매

닭이 자라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삼장통합경영(축산계열화사업)으로 직접 관리합니다



삼장(三場)은 농장, 공장, 시장 3개의 장을 말해요.

하림은 이 삼장을 통합해서

생산과 가공, 유통, 판매를 하나로 연결하는

애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를 완성시켰습니다.

1978년 전북 익산 황등농장에서 출발해

1986년 하림식품을 설립하고

제조업의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 방식을

업계 최초로 닭고기 산업에 도입해

‘삼장통합경영’을 내세우며

국내 농축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어요.

이를 통해 안정적인 가치 사슬을 만들어냈고

대한민국 육계 산업의 선두로 자리매김하게 됐어요.

하림의 삼장 통합경영 왜 중요할까요?

효율성↑, 비용↓ 중간 단계를 줄여 신선한 닭고기 제공

품질·위생 관리 모든 단계가 통합돼 있어

안전하고 깨끗하게 믿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생산부터 판매까지 투명하게 추적 가능

하림이 오늘날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배경인 삼장통합!

하림은 삼장통합이라는 수직계열화를 이뤄내

오늘날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답니다.

새내기자 | 이민정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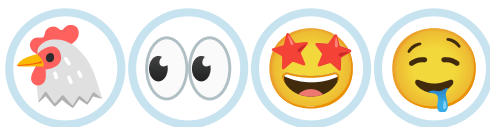
이달의 Quiz 퀴즈풀고 선물세트 받자!

다음 이모지 3개 보고

연상되는 투어는?

HINT!

하림의 신선한 닭고기를
직접 보고 만지고 먹을 수 있는
오감 투어 프로그램



정답 : ○○○

제 232호 당첨자

박*연 안산시 단원구

김*희 인천시 계양구

정*서 충주시 대소원면

장*희 서울시 마포구

정답 제출 방법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세트’를 보내 드립니다.

보낼 때는 정답과 함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같이 적어 보내주세요.

[메일주소]

E10202771@harim.com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 더 현명하게 보내기

명절 전후로 생기는 신체적·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 증상인 명절증후군!

주로 과도한 가사 노동, 교통 체증, 가족 간 갈등, 경제적 부담 등으로 스트레스가 신체적·정신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는 제사 음식부터 설거지까지 며느리에게 집중되는 가사노동 스트레스가 가장 강했다면 대학, 취업, 결혼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명절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있다. 긴 연휴가 이어지는 이번 명절, 스트레스 없이 잘 보내보자!

❖ 명절증후군 해소법 ❖

적당한 수면 / 규칙적인 수면

충분한 수면은 필수! 지친 몸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따뜻한 물로 샤워나 반신욕을 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명절에는 생체리듬이 깨지기 쉬운 만큼, 가급적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규칙적인 수면은 우리의 신체 리듬을 안정화하고 명절 후에도 빠르게 일상을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벼운 산책과 스트레칭

가사노동과 장시간 운전으로 목과 어깨, 허리 등 통증 발생이 쉬우니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자.

음식 조절하기

고칼로리에 기름진 음식만 먹게 되는 명절! 실제로 명절에는 급체, 복통으로 응급실 찾는 사람이 많다. 채소, 과일, 수분 등을 섭취하며 소화 회복을 돕자.

갈등 완화 대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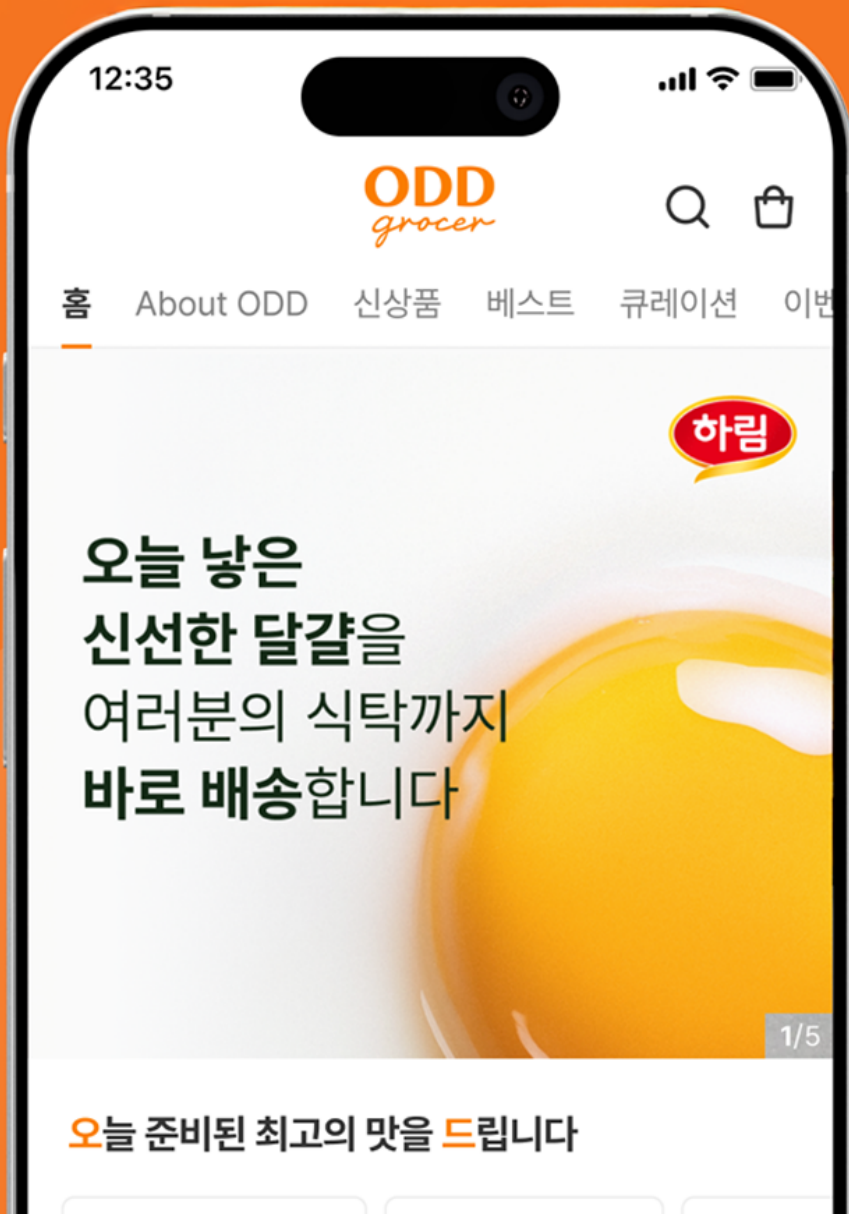
입시, 취업, 연봉, 결혼 등 명절 갈등을 유발하는 대화 대신 가벼운 일상이나 추억, 문화·콘텐츠, 여행·맛집, 계절·취미 등 갈등을 줄이는 대화 주제를 선정해보자. 비교, 판단이 필요 없는 주제로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대화를 하는 게 좋다.

하루 '회복데이' 확보

복귀 전 하루 정도는 집에서 푹 쉬면서 회복데이를 갖는 것도 좋다. 명절 동안의 피로와 스트레스는 저절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휴식과 자기 돌봄에 집중하는 건 큰 도움이 된다.



ODD grocer



(주) 하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063-860-2422 www.harim.com